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소속 현장점검팀이 지난 10일 내년 7월 대회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광주U대회 현장 중심 점검 나선다

조직위, 월드컵경기장 등 70곳
안전·시상 등 시나리오별 점검
자원봉사자 최종 선발 착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 조직위)가 내년 7월 개최되는 대회 준비를 위해 메인 경기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또한 대회를 직접 지원할 자원봉사자 1만5000명도 최종 선발한다.

11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종목별 유관기관 관계자와 분야별 담당자 등과 함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70개 전 경기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난 10월 폐막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지적된 사례 등을 반영해 현장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물자, 시설, 안전, 의전, 시상 등 경기 전반에 대한 실전 점검

도 병행할 계획이다.

U대회 조직위는 또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와 담당자 간 토론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올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조직 전반을 현장 체계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U대회 조직위는 이를 위해 대회 성공의 핵심 키를 쥔 자원봉사자 선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조직위는 이달부터 3개월동안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만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U대회 자원봉사자 면접심사는 2013년부터 모집된 5만 8000명 중 지난 6~9월 까지 3개월간 서류심사를 통과한 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언어능력, 전문성, 참여 의지 등을 기준으로 배점 합계 고득점자 순이다.

면접위원은 통역분야의 경우 각 대학의 원어민 교수이며, 일반분야는 자원봉사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최종 선발자는 2015년 2월 광주U대회 자원봉사 홈페이지(http://vt.gwangju2015.kr)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내년 3~4월 분야별 배정을 완료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대회기간 중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윤석 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자질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9개 대학 내에 자원봉사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국어는 물론 기본·직무·심화교육을 진행해 왔다”면서 “전 세계 170개국의 외국인 선수단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육성 및 선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달빛동맹 강화’ 대구 여성지도자 광주 방문

광주시와 대구시가 맺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해 대구지역 여성지도자들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시는 “12일 대구여성단체 회원 40여 명이 영호남 화합과 여성발전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류행사는 지난해 3월27일 광주시와 대구시의 1일 시장 상호근무 때 양 도시간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날 광주시여성단체회에서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과 여성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환경보호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광주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구를 방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3대 숙원 풀어준 ‘행복한 목수 봉사단’

50년 된 집 산뜻하게 수리

광주시 ‘행복한 목수 봉사단’ 회원 40명이 11일 오전 북구 일곡동 김모(72) 할머니의 낡은 단독주택을 찾았다.

봉사단은 할머니 내외와 자녀 내외, 손녀 등 3대가 살고 있는 집이 지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가족들 건강과 경제 여력이 없어 낡았어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출동한 것이다.

이들은 조를 나누어 일부는 창문을 뜯어내고, 일부는 도배와 장판교체를 했다. 또 다른 이들은 재래식 화장실을 모두 걷어내고 목욕까지 가능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단은 특히 집 수리는 물론 손녀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마련해주고, 외벽 도색과 주변 청소까지 맡겨주게 해줬다.

김 할머니는 “겨울이면 창틈으로 찬



바람이 뿜뿜 들어오고, 화장실이 재래식인데다 목욕할 곳도 마땅치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고쳐줘 줄 겨울은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해했다.

‘행복한 목수 봉사단’은 민선 6기 광주시의 공약사업이다. 시가 자체비 등 최소한의 시비 지원을 하고 각계의 재

능기부가 결집되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봉사단에는 광주재능기부센터와 중흥동 자재의 거리 상인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원업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 미래 먹거리 발굴하자

‘미래산업추진위’ 출범

광주시의 산업정책과 미래 먹거리 발굴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게 될 ‘미래산업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공동위원장)과 추진위원 30여 명은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윤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에는 이도재 (유엔시애틀코리아 기술이사)가 선출됐다.

이 공동위원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분야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위원회의 구

성 취지에 맞게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자율 토론에서 광주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발전 방향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방안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 ▲장조콘텐츠 산업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은 향후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6개 분과 TF팀의 논의를 거쳐 향후 광주시 산업발전을 위한 분야별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은 우리 힘으로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 마련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해결하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이 마련된다.

광주시가 구축하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는 ▲아웃, 동네, 행정이 함께 참여해 이웃을 돕고, 복지지출을 연계해 마을경제를 살리는 광주순환복지체계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자치 조력을 통해 마을의 복지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고 ▲마을 내 민간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공동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복지 욕구를 사회복지시설 직접 지원방식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

고,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 전문가, 현장 활동가, 복지시설 관계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내년 2월까지 실효성 있는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과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각계각층 인사로 복지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지공동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시범 추진사업 방향 설정, 심의 및 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립무등도서관 임시 휴관

13일~12월 21일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올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이번 휴관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 전정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노후한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난 2012년부터 사적·산수도서관의 석면자재를 제거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사적도서관의 노후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했다.

시립사적·산수도서관은 정상 개관한다.

무등도서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휴관한다”면서 “공사 기간 다른 도서관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